

外国語會話

6월의 어느 날 G가 도쿄에 왔다. 그는 오기 며칠 전 메일을 보내, 시간이 된다면 주말 중 하루 저녁에 식사를 하자고 했다. 난 무척 반가웠고 토요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곧 여기에서 사귄 친구 S에게 연락해 함께 만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S는 같은 연구실 소속의 미국인으로, 영어와 일본어를 구사한다. G는 뉴욕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일하는 한국인이며 영어와 한국어를 쓴다. 둘은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았고 서로가 도쿄를(이때는 G의 첫 도쿄 방문이었다), 서울을(S는 첫 서울 방문을 앞두고 있다)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약속 당일, G씨는 자신의 애인 H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홍콩 출신이었고 서울에서 반년을 머무른 적이 있다. 그의 언어는 광둥어와 영어였다.

모두의 공통 분모는 영어였고 따라서 대화는 영어로 이루어졌다. 다만 나는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영어를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나 대답만 영어로 하고 주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듣는 것에 불균형이 생긴다. 단순 가정으로, 내가 세 가지 전략을 취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1. 나는 한국어로 마음껏 말하고 G는 완벽히 알아듣지만 S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며, H는 아주 조금밖에 알아듣지 못한다. 2. 나는 일본어로 신경 써서 말하고 S는 알아듣지만 G와 H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3. 나는 영어로 아주 제한적으로 말하고 S와 G, H는 그것을 똑같이 알아듣는다. 그들이 사용 언어에 비교적 민감하지 않을 때, 나는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세 언어를 번갈아 써야 했다. 마치 달리는 탈것 옆에 나란히 서서 달리며 세 가지 색깔의 공을 튕겨내는 게임 같았다.

어차피 그런 노력을 할 거라면 3으로 일관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들이 알던 누군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등장해야 했다. 어릴 때는 몰라도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학습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축소된다는 느낌을 갖는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버리기 때문이다. 언젠가 트위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일터에서 영어로 소통할 땐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의 70%만 말할 수 있다고 미리 염두에 둔다는 얘기였다. 어쨌든 이 자리가 외국어를 학습하는 자리였다면 나는 손상된 상태로 등장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대화가 이미 내가 평소에 모국어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수준의 궤도 위로 올라와 있었다. S와 G와 H가 영어를 구사하는 만큼, 여기에서는 그 ‘만큼’이 중요한 것이었다.

어느 국면에서 내가 S를 향해서만 일본어로 뭔가 긴 설명을 하자, 일본어를 모르는 G가 방금 이리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그 추측은 아주 정확했다. 놀라는 내게 G는 당신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물론 대화의 맥락도 중요한 정보였을 것이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어쨌든, 익숙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예컨대 이런 것이다. 전혀 낯선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녀라면 이런 경우엔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그대로 통한다.

그러나 일견 비슷해 보여도 반대의 경우는, 그러니까 G에게 한국어로 말하는 내용을 S가 때려 맞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일본어가 생각의 속도와 볼륨을 따라잡는 표현 수단이긴 해도 어쨌든 외국어인데 비해, 한국어는 생각하는 방법 혹은 생각과 표현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와르르 쏟아져 나가는 모국어이기 때문이다. 일본어가 손에 익은 외부 기관이라면 한국어는 신체의 상태이다. 나는 일본어로 뭔가 긴 걸 말할 때, 일단 모국어로 떠오른 생각들을 일본어 표현으로 교환해 나가다가 벽에 부딪치면 생각을 축소하거나 대안적 표현을 찾아 메워내는 작업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는 중이라는 실감을 갖곤 한다. 어쨌면 G가 읽은 것은 이 공정이었을 지도 모른다. 비슷한 이야기로, S는 일본어 네이티브 스피커보다 일본어가 외국어인 나와 일본어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건 우리 둘 다에게 일본어가, 표현을 위한 별도 프로세스를 비슷한 수준으로 거치는 외부 기관이라는 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 다 비슷한 성능의 산소통을 들고 와서 숨을 쉬는 동지라, 자기 폐로 숨 쉬는 사람들 앞에서보다 몇쩍지 않은 것이다.¹

기억에 남는 외국어 대화 장면이 또 있다. 일본에 온지 사흘밖에 안 된 4월 초, 마침 도쿄에 여행 온 지인들과 네즈의 한 호텔방에서 새벽 다섯 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들의 직업은 소설가, 서평가, 문학 편집자로, 한국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일본어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 도쿄 초행이라 낯선 언어 환경 속에 던져진 셈이었으나,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한국어가 있었고, 이것이 다른 언어 세계에 놓임으로써 오히려 더 끈끈해지고, 더 들러붙고, 더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그게 기분 나쁘게 의식될 수준에 오르게 된 것 같다. 그날 새벽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오로지 영어로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구도 영어권에 살다 오거나 영어로 된 자기 모습을 가져본 적 없는 이들이었기에 뭔가를 말하려면 오래 생각한 끝에 초보적인 단어와 조합으로 후퇴하거나 했다. 대화는 계속 부서졌다. 웃기고 엉망이었다. 앞의 대화가 유창한 사용자가 높은 궤도 위에 올려놓은, 혹은 빠르게 운전하는 탈것 옆에서 공을 튀기며 뛰는 감각이었다면 이 때는 다 같이 손상된 몸을 질질 끌며 걷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부상자처럼 말하다가 무척 느린 택시를 타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일어나서 어젯밤을 생각하니 민망하기도 한데 또 좋은 거다. 술 취해서 한국말을 하면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한다. 영어를 쓰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다.” 그날 함께였던 J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걸 읽었다. “안 해도 될 말”, 즉 쓸데없는 말, 또는 아무 말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후회할 기억을 남기는 건 술 취했을 때의 얘기만이 아니다. 오히려 취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도 못한다. 여러 예가 있지만 나는 서평 기자 시절 종종 취재했던 책 관련 대중 강연이나 토크의 ‘질의응답’이 녹음된 파일을 글자로 풀어봤을 때의 충격을 들고 싶다.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 자체가 아무 말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한국어 자체보다는 신체화된 한국어의 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몸에 붙어버린 말이 감탄사나 비명이나 하품이나 재채기처럼 특하고 쏟아지거나 새어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 몸에서 나가는 감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 생각하고 조절하며 내뱉고 있을 터인데도 나온 것은 하품이고 비명 같아서, 그게 내 생각이고 조절이라니 믿고 싶지 않다는 감각에 가깝다. 우리는 혈, 대박, 그런 것들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혈, 대박, 그런 걸로 이렇게 글도 쓴다.

*

무라카미 하루키는 타이프라이터를 사용해 영어로 한 챕터 분을 쓴 다음 원고지와 만년필로 돌아가 그 영문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데뷔작『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완성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노린 것에 대해 “여분의 수식을 배제한 ‘뉴트럴’한, 움직임이 좋은 문체”, 그리고 이른바 ‘순문학 체제’ ‘소설 언어’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본어를 사용해 자신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개인적 노력을 확장시켜 사사키 아쓰시는 그가 “의도치 않게 도전한” 것이 “일본어로 어떻게 미국 문학을 쓸 것인가”라는 난제였다며 80년대 이후 일본 문학 장에서 영어, 영어 문학의 작용을 이야기한다.² 그러나 의도한/의도치 않은 야망이 어찌됐건 나는 이것이 아무 말 점검용으로 꽤 용이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이 글을 먼저 우선 일본어로 쓴 후 한국어로 직접 번역을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나는 보통 일본어 문장을 쓸 때도 먼저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쓴 후에 그것을 Google 번역에 의해 반환 일본어를 가져와 일본어로 트리밍 그것을 다시 Google 번역에 의해 반환 한국어로 확인 후 어색함을 다시 정돈가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달 언어 버전으로 만들어가는 때문이다. Google을 매개하여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지거나 뭉개 버린 말을 모두 거르는 정화 과정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형태에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지 확인하는 반성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³

1 한편, 그 자리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쓰는 것은 S였는데도, 점원들이 주문을 받으며 바라보는 대답을 기다리는 대상은,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G와 H였다는 것도 재미있었다. 언젠가 S와, 외국어로서의 일본어의 위상이 서로에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 일본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 여성에게 일본어는 일정 수준 이상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그 이하가 되면 빼끗하지만, 마찬가지로 백인 남성에게는 그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빼끗해진다. S는 왜 그렇게 일본어를 잘 하느냐는 얘기를 ‘매일’ 듣는다고 한다.

2 佐々木敦, 『ニッポンの文学』, 第三章, 「英語から遠く離れて」, 講談社, 2016, 105~132쪽 참조.

3 이 단락은 한국어로 쓴 뒤 구글 번역기로 일본어로 번역해 그것을 윤문한 뒤에 다시 구글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되돌린 것이다.